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4)

간신외지

奸臣畏之

간신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정계(政界)는 항상 시끄럽다.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느니 하며 다투지만, 결국은 세력 다툼으로 보일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들은 각기 각각의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서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바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노력한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서는 항상 공정성을 강조하며 부패를 척결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라면 누구나 주장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공정하게 정사(政事)를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 말과는 달리 공적인 것을 방치한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는 불공정을 저지르면서 이를 덮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옛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간신(奸臣)이 아닐까?

이러한 일은 원대(元代)에 인종(仁宗)시절에 윤행하였다. 속자치통감에는 영종(英宗)시절의 재상(宰相)이었던 특문덕이(特門德爾, 鐵木迭兒, ? ~1322)에 관하여 ‘그는 간사하고 교활하며 음험함이 깊어서 음모(陰謀)를 무더기로 내며 10년 동안 정사(政事)를 오로지 하다가 결국 뇌물죄를 지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고 간사한 실특문(實勳們, 失烈門)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액특실반(額勒實班, 也里失班)의 무리에게 아첨하며 불고 억지로 그 생명을 온전히 하였는데, 일찍이 태자태사(太子太師)의 직책을 맡았다.’라고 기록했다. 그는 부패한 인물이지만 옳아치러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인종이 죽고, 그 동생인 영종이 뒤를 이어서 등장하였으며, 얼마안되어 인종시절에 막후에서 권력을 흔들었던 황태후도 죽었다. 부패 세력이 기멸 곳이 없어진 셈이다. 이제 영종은 제대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혁론자인 배주(拜珠, 拜住, 1298~1323)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시작한다.

사서(史書)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인종시절인 연유(延祐, 1314~1320)연간에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이어져서 백성을 즐겁게 살지 못하였었는데, 배주가 들어가서 재상이 되자 강기(綱紀)를 떨쳐 세우며 급하지 않은 업무를 잘라내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문을 틀어막았다. 영종(英宗, 碩德八剌, 1302~1323)은 이에 의지하여 서로 더불어 격려하며 면밀하게 치세(治世)를 도모하였으니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은 안연(晏然, 安寧)하여 즐겨 살 마음을 갖

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백성들이 즐겁게 살게 되면 모두가 칭찬하며 뒤를 밀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음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깨끗하면 불리해 지는 부패하였던 무리들이든바 간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개혁정치는 자기들의 이익이 빼앗기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영종과 배주가 있는 이상 전혀런 부정과 불법을 통하여 누리던 부(富)가 계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들은 황제인 영종과 재상인 배주를 죽이는 이른 바 시역(弑逆)을 행하였다. 영종 지지(至治) 3년(1323년)에 황제가 상도(上都)에서 출발하여 대도(大都)로 오는 도중 남파(南坡)에 주필(駐蹕)하게 되었을 때, 인종대부터 권력을 장악하던 특극실 등의 일당이 영종과 배주를 공격하여 죽였다. 새 황제가 등장하여 3년간 개혁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것이다. 속자치통감에서는 이를 보고 ‘간신(奸臣)은 개혁을 두려워하여 끝내 화난(禍難)을 얻어 만들었다.’ 고 써 놓았다.

물론 개혁에 반대하여 일으킨 남파(南坡)에서의 반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붙잡혀서 처단되었다. 그러나 시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집단이익을 위하여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태정제(泰定帝)가 등장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개혁 반대세력과 싸울 힘이 없었는지 의지가 없었는지 거의 대부분 인종(仁宗) 시대의 모습을 따라갔다.

이러한 태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장규(張珪)는 ‘세조(世祖, 쿠빌라이)는 좌우에 있던 신하를 비록 아주 아끼며 총애하였지만 공로를 세운 것 없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상을 주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년에는 상사(賞賜)하는 것이 범람(汎濫)하는데, 대개 근시(近侍)인 사람을 통하여 천안(天顔, 龍)이 가열(嘉悅)한 때를 엿보다가 혹은 궤재(乏財)하여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든가 혹은 딸을 시집보내거나 며느리를 얻는다고 하거나 혹은 기물(伎物)을 헌정(獻呈)하면서 서로서로 차례대로 주청하며 상사(賞賜)할 것을 요구하니 이미 재용(財用)을 상(傷)하게 하였고 다시 행문(幸門)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공훈(功勳)과 노효(勞效, 노력한 효과)가 밝히 드러난 실적(實跡)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의당 상사(賞賜)를 덧붙여 주어서는 안 되며 청컨대 이를 저

록(著錄)하여 법령으로 만드십시오.’라고 절실하게 말하였지만 태정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 후 태정제도 5년 뒤에 죽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5년 동안에 천순제(天順帝), 문종(文宗), 명종(明宗), 념종(寧宗) 등 4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개혁이란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맨 마지막 황제인 순제(順帝)는 10여세에 등극하여 37년간 황제의 자리를 지켜서 세조(世祖)보다 오래도록 황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 이득에 집착하는 정치집단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황제는 이들과 싸우며 개혁을 하지 않으니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나라는 멸망해 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1368년에 황건적 출신의 주원장(朱元璋)의 명나라에 중원(中原)을 넘겨주고 북으로 가서 북원(北元)을 지키다 2년 만에 죽었다. 원의 멸망은 개혁반대 세력이 자초한 것인 셈이다.

흔히 원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를 빈번한 천재지변, 즉 한재(旱災)와 수재(水災)라고 한다. 그러나 원말에만 특별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수재와 한재에 대처하고 극복할만한 정치력이 없었던데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개혁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힘이 없었던데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개혁세력은 겨우 3년간 권력을 장악하고서 실패하였고, 그 후 40여년은 개혁반대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실 오늘날 세계에는 국가 권력에 맞대응하는 마피아조직 같은 것이 있고 이들과 유착해야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 이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들과 손잡는 관원이 있다면 옛말로 간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비슷한 세력이 없을까?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전체를 고루 행복하게 하려고 구습(舊習)을 개혁한 정치는 몇 번이나 될까?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던 일이 더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부가 정말 개혁 세력일까? 아니면 또 수많은 이익집단에 의하여 휘둘리는 순제(順帝)시절 같은 정권일까? 그것은 ‘천하 사람들이 안연(晏然, 安寧)하여 즐겨 살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닌 지’로 평가될 것이다. 제발 스스로 실패하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난형난제(難兄難弟)

어려운 난. 형형. 아우 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람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의 고사성어. 비슷한 말로 백중지세(伯仲之勢)가 있다.

남가일몽(南柯一夢)

남녘 남. 가지가. 한 일. 꿈 몽.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아래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유래 : 당나라 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집 앞의 큰 해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꿈에 관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저희는 괴안국 왕의 명으로 대인을 모시러 온 사신입니다.” 순우분이 사신을 따라 해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국왕이 성문에서 반기가 맞이했다. 순우분은 부마가 되어 갖은 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이 하도 이상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해나무 뿌리 부분에 구멍이 있고 구멍 속에는 숭늌는 개미들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괴안국이었던 것이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남녘 남. 아이 아. 한 일. 말씀 언. 무거운 중. 일천 천. 쇠금.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말 한마디의 무게와 신중함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이다. 이 고사성어는 자치통감 권186에 나오는 문구 “장부일언허인 천금불역”(丈夫一言許人 千金不易)에서 유래되었으며 “사나이는 한 번 약속하면 천금을 쥐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신뢰를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여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錘)

주머니 낭. 가운데 중. 어조사 지. 송곳 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유래 : 중국의 전국시대 말엽, 진(秦)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趙)나라 해문왕은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을 초(楚)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20명의 수행원을 선원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19명을 뽑았는데 1명을 뽑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데 모수라는 식객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다. 평원군은 어이가 없어 하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의 송곳같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오.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일이 없지 않소?” 하고 반문하였다.

이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송곳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였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의 활약 덕분에 국민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안 내. 근심 우. 바깥 외. 근심 환.

나라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가리킴.

유래 : 춘추전국시대 진(晉)나라 범문자가 초나라와의 전쟁을 다른 대신들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혼자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오직 성인만이 안과 밖의 근심을 없게 할 수 있고 성인이 아니라면 밖의 재난이 없어도 반드시 안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법이다.” 범문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초나라, 정나라 같은 밖의 근심은 잠시 내버려 두자고 한다. 이것이 내우외환의 유래이다.

군사(郡事)란 직위?

고려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군(郡)의 장관(長官), 곧 판군사(判郡事), 지군사(知郡事)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판군사 : 조선초기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인 군(郡)의 장관(官). 품계는 정3품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군사직함)가 겸하였다.

-지군사: 고려 조선초기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군(郡)을 맡아 다스리는 장관(官).

3품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판군사(判郡事), 3품 이하의 관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군사(知郡事)라 하였다가 조선 세조(世祖) 12년 1466년에 군수(郡守)로 고쳤다.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安東權氏 始祖 太師公) 묘소(墓所)를 찾은 평창공(平昌公) 권옹(權雍, 추밀공파 17世)의 최종 관직명이 평창군사(平昌郡事)였다.

장개(靑峯) 권오진(權五辰, 부정공파, 35世)



평창군사의 묘소는 시조 태사공 묘소 바로 밑에 자리한다.

2025年 9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8.1. ~ 8. 25. 총 납부자 12명 총 43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광순(대전) 30,000	권동철(광양) 30,000	권병국(산청) 100,000	권오달(서울 관악) 30,000
권오준(포항) 30,000	권오철(강릉 심곡리) 30,000	권중숙(남양주) 30,000	권종욱(영주) 30,000
권종욱(서울 서대문)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태윤(대구) 30,000	권혁배(시흥)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총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